

항공기부터 택시까지... 미니보험, 대중교통 보장 확대

교보라플, 서울시-티머니와
'기후동행카드' 미니보험 선배
대중교통 장려, 안전까지 보장

KB라이프 '대중교통안심보험'
항공기, 기차 등 사망·장해 보장

미니보험이 최근 대중교통 이용자를 위한 보장 상품으로 확장되고 있다. 기존 생활 속 작은 사고나 특정 활동(운동, 레저 등)을 보장하는 성격이 강했지만 이제는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까지 포괄하는 상품이 등장하고 있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라이프플래닛과 서울시는, (주)티머니가 손잡고 출시한 미니보험이다. 보험료는 모바일 기후동행카드 신규 가입자 또는 충전을 완료한 사용자 대상으로 (주)티머니에서 전액 부담해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주요 보험사가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Chat GPT가 생성한 대중교통 미니보험 이미지.

보장 내용은 대중교통이 주 이동 수단인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재해 골절(치아 파절 제외) 진단비 10만원 ▲갑상(부목 제외) 치료비 10만원 ▲강력 범죄 피해 상해 위로금 최대 2000만원 등이다. 보장 기간은 가입 후 1년이다.

해당 상품은 특히 대중 교통 이용 장려 정책과 맞물려 시민 안전까지 고려했다는 평가를 얻는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번 기후동행카드 미니보험을 모바일 기후동행카드에 시범적으로 우선

제공하고 추후 검토를 통해 실물 카드, 후불카드 이용자에게도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영석 교보라이프플래닛 대표이사는 "이번 '기후동행카드(무)라플365미니보험'은 모바일 기후동행카드 이용고객이 보다 안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티머니와 함께 개발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KB라이프생명 측은 지난달 21일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과 재해 장해를 보장하는 'KB 지켜주는

대중교통안심보험 무배당'을 내놨다.

해당 상품은 항공기, 지하철, 기차, 버스, 택시 등 다양한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사망과 장해를 최대 3년 동안 보장한다. 보험 가입자가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사망할 경우 대중교통 재해 사망보험금으로 최대 5000만원을 지급한다.

교통사고로 장해를 입은 경우, 장해 지급률을 적용해 최대 1500만원을 대중교통 재해 장해급여금으로 보장한다. 또한 'KB 지켜주는 교통안심보험 무배당(2형)'을 가입하면 일반 차량 이용 중 발생한 교통사고까지 폭넓은 보장이 가능하다.

가입 가능 연령은 19세부터 64세까지로 연령과 직업에 관계없이 동일한 보험료(남성 1200원, 여성 500원)를 단 한 번만 납부하면 최대 3년 동안 보장을 받을 수 있다.

KB라이프생명 관계자는 "최근 교통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져 고객들이 일상과 생업에서 보다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미니보험 상품을 출시했다"고 설명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카드 News

신한카드

쏟모임 체크카드 출시
100팀에 5만원 캐시백

신한카드가 편리한 모임 관리를 위한 '쏟모임 체크카드'를 출시하고 기념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상품은 신한 쏠뱅크 앱에서 모임을 개설하면 발급할 수 있다. 기존 입출금 계좌 연동도 가능하다. '포인트 플랜 카드'에 모임 맞춤형 특화 디자인을 적용했다.

국내외 결제 시 건당 최대 1%를 마 이신한포인트로 적립한다. 행사와 모임이 몰리는 5월과 12월은 적립 한도를 5000포인트 추가로 지급한다. 연회비는 무료다. 오는 31일까지 출시 기념 행사를 진행한다. 추첨을 통해 총 100팀에게 5만원을 캐시백한다. 대상은 ▲요식업 ▲스포츠용품 ▲해외 오프라인 중 하나를 선택해 쏠모임 체크카드로 결제한 고객이다.

NH농협카드

등록금 무이자 할부 등
신학기 응원행사 준비

NH농협카드는 신학기를 응원 행사를 준비했다고 4일 밝혔다.

오는 31일까지 교육비 자동 납부 등록 및 1회 이상 납부 시 GS25 5000원 모바일 쿠폰을 증정한다. 추가로 선착순 100명에게 최대 5만원을 캐시백한다.

대학 등록금 할부 혜택도 마련했다. 연말까지 대학등록금 5만원 이상 납부 시, 최대 10개월 무이자할부를 제공한다. 이어 ▲지방세 ▲전자상거래 ▲의류 ▲병원·약국 등에서 최대 6개월 무이자 할부를 적용한다.



KB국민카드

창립 기념일 기념행사
취약계층 후원금 마련

KB국민카드는 창립 기념일을 맞아 '위드드림(WE:SH DREAM)' 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해 지난 2023년부터 진행한 사회공헌활동이다. 취약계층 아동의 소원 성취를 응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진다. 이달 걷기기부 플랫폼 '빅워크'를 활용해 걸음을 기부한다. 목표 기부 걸음 수 1억보를 달성하면, 소원성취 후원금을 조성한다.

후원금은 어린이날이 있는 5월에 사용한다. 전국 지역아동센터 소속 아동 555명에게 선물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유리 기자 yul115@

/김정산 기자 kimsan119@

이달 2.5만 가구 '봄 분양 기지개'... 옥석가리기 본격화

수도권 1.9만가구 지방 6000가구
'고양더샵포레나' 2601세대 주목
경기 불확실성 속 건설사 신중모드

3월 분양 예정 아파트가 2만4880여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월(1487세대)의 16배 물량이다.

4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이달 분양 예정 물량(총 가구수 30가구 미만 아파트 단지·임대아파트 단지·사전 청약 등 제외)은 26개 단지, 총 2만4880 가구에 조사됐다. 전월(5385가구)과 비교해도 362%나 늘어난 물량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1만8596세대, 지방은 6284세대가 공급된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1만4416세대 ▲인천 4180세대가 예정돼 있다. 서울은 분양 예정 사업장이 없다.

개별 단지를 살펴보면 대규모 브랜드 단지가 눈길을 끈다. 경기지역에서는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들어서는 '고양더샵포레나' 2601세대가 나온다. 용



'용인푸르지오원클러스터' 투시도.

/대우건설

인시 처인구에서는 '용인푸르지오원클러스터2단지' 1804세대가 분양예정이다. 의왕시 고천동 '제일풍경채의왕고천' 900세대, 평택시 장안동 '평택브레인시티10블록' 1420세대 등도 분양준비 중이다. 인천에서는 미추홀구 학익동 '시티오씨엘' 7단지 1453세대와 부평구 산곡동 '산곡구역효성해링턴플레이스' 2475세대의 분양이 예정돼 있다.

지방에서는 ▲경남 2638세대 ▲부산 1667세대 ▲경북 999세대 ▲강원 508

세대 ▲대구 472세대 순이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창원메가시티자이&위브' 2638세대,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힐스테이트더샵상생공원1단지' 999세대, 부산 강서구 강동동 '에코텔타시티아테라' 1025세대 등이 이달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3월은 전통적으로 '봄 분양' 시즌이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고려하면 분양 성공여부 관심이 쏠린다. 정부의 지방 미분양 해소 대책으로 한국

토지주택공사(LH) 매입 정책이 발표됐지만 시장 전반의 수요 위축을 단기간에 반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요자들의 청약 심리는 위축된 상태로 건설사 역시 신중한 분양 전략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기준 금리 인하가 단행되며 대출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 인하가 주택 수요 회복으로 바로 연결되기보다는 당분간 관망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다만 김 랩장은 "분양가 경쟁력이 있거나 입지가 우수한 단지는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실수요자들은 청약통장을 신중하게 활용하며 옥석 가리기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단지별 청약 성적의 양극화가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지원 기자 jiw13@

하나銀, 개인사업자 '가맹점 적금' 출시 '화담숲에서 걸어봄' 참석 고객 모집

하나은행이 개인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하나더소호 가맹점 적금'을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하나더소호가맹점적금은 하나은행의 소상공인 금융 특화 브랜드 '하나더소호'의 첫 번째 금융 상품이다. 카드 가맹점 대금 입금 실적에 따라 최대 연 8% 금리를 제공한다.

하나더소호가맹점적금의 가입금액은 매월 1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이며 계약기간은 1년이다. 적용금리는 기본

금리 연 2.0%에 우대금리 최대 연 6.0%를 더해 최고 연 8.0%이다. 우대금리는 ▲가맹점 입금 실적 6개월 이상 보유 시 연 2.0% ▲가맹점 입금카드사 개수에 따라 최고 연 4.0%이다.

또한, 적금 만기 전이라도 ▲사업장 구입 자금 ▲임차보증금 지급 ▲부가세·소득세 납부 등의 목적으로 중도해지 시에는 신규 가입 시점의 기본 금리를 적용해 사장님의 안정적인 목돈 마련을 지원한다.

/사유리 기자

신한은행 계좌 5대연금 수령 고객

신한은행이 오는 31일까지 경기도 광주시 소재 화담숲에서 진행되는 '화담숲에서 걸어봄' 행사에 참석 고객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화담숲에서 걸어봄'은 시니어 관광 명소인 화담숲과 신한은행이 주최하는 걷기 페스티벌이다.

벚꽃 개화시기에 맞춰 4월 14일 전관 행사로 진행하며, 모집대상은 5대연금

(국민·공무원·사학·군인·보훈)을 신한은행 계좌로 수령하는 고객이다.

이번 행사는 기존 연금 수령 고객뿐만 아니라 31일까지 연금 수급계좌를 전환 또는 신규 지정한 고객도 참여할 수 있다.

행사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신한 SO L뱅크 이벤트 페이지에서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3000명(1인 2매)에게 입장권을 제공한다.

/사유리 기자 yul115@